

교각·원호·월총 스님의 사상과 저술 등

신라·고려, 중국불교 발전에 큰 영향



◇두지원 교수

▲현재 재직 중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두지원 : 세계종교연구소내에 불교연구실과 불교문화 연구실이 있다. 불교연구실에서는 불교의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중국불교사와 세계불교사를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불교, 불교문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허진송 : 불교문화연구실에서는 불교가 중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주고 있는지 문화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불교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두지원 : 허진송 교수가 <한국불교사상, 하>를 쓴 장본인이다. 중국에서 한국불교 연구는 한·중 불교관계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타국불교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공통적 인식은 이들이 중국불교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에 있다.

허진송 :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에 공헌한 바가 많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불교학자들은 인도 스님들이 중국 불교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영향을 준 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스님이 중국에 영향을 준 사례가 많은지.

허진송 : 지장보살의 영지로 중국 4대 불교 명산 가운데 하나인 지우화산(九華山)의 교각 스님과 신라 무상(無相 680~756) 스님, 원호 스님의 사상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 무상 스님은 쓰촨성(四川)에서 선종을 전파했다. 당(唐)대에 북중국(北宗)의 정종종을 완성한 스님으로 정종사(淨衆寺)에 머물면서 후화양성에 힘썼고 대자사, 보리사, 영국사 등을 건립,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호 스님은 중국의 화엄사상, 법상종(法相宗)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고려시대 <전태사교의>를 저술한 제관(繼觀 ?~970)

11월 14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6회 천태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중국 불교학계를 움직이는 두지원(杜繼文), 허진송(何進松)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방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안의 불교연구실은 중국 불교연구의 중심으로, 두지원 교수는 전 세계종교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중국불교통사>를 집필한 불교사 전문가다.

제6회 천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두지원·허진송 중국교수에게 듣는다

허진송 교수는 두지원 교수의 제자로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불교문화 연구실 실장이다. 두지원, 허진송 두 교수로부터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교류 가능성과 중국에서 불교의 위상,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관계 등을 들어봤다.



◇허진송 교수

여러 종교가 중국사회에 나타나고 있지만 도교·불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양쯔강(揚子江) 이남에서는 불교인구가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도인 만큼 중국 정부의 관심도 각별할 것 같다.

두지원 : 중국 정부는 현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을 확대시키면서, 국민을 계도할 수 있는 종교를 불교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를 장려하며, 불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사는 정부 지원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10여 년 전 간행된 200여권 분량의 <중화대장경> 역시 중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허진송 : 참고로 <중화대장경>은 산시성(山西省) 조성사에 있던 금나라 때 대장경을 저본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에서 보충했다. 한국 불교는 이렇게 중국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학자들은 한국 불교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두지원 : 한국불교와 중국불교는 고대에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현재에도 중국 불교협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이에는 잦은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 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한국 불교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진송 : 반면 일본과의 학술교류는 활발하다. 일본 장가학회의 '일본중앙철학연구소'나 '중의일보' 같은 일본 내 연구소나 언론사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가 해마다 열린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중국과 학술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간헐적인 교류만이 있을 뿐, 지속적인 학술교류는 이번엔 참가한 학술대회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동아시아 국가 불교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한국 불교학계나 불교계에서 만들어주길 바란다.

오유진 기자 e.exist@buddhapia.com

스님은 천태 논소제문(論疏諸文) 등의 자료를 송나라에 전해줘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지원 : 아직 고증된 바는 없으나, 중국에서 인도 스님이 썼다고 알려진 전적들 가운데에는 신라시대 스님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전적류들도 있다. 한국 스님들은 중국 불교 사상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신라 월총(月聰) 스님이 쓴 것으로 알려진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은 이후 티베트어로 번역돼,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서 쓴 책들이 티베트에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중국에서 천태학 연구 동향은?

중화대장경 미흡부분 고려대장경서 보충

한·중학자 교류없어 한국불교 제대로 평가 못해

두지원 : 중국에서 천태학 연구 열기는 매우 높다. 반계명이란 사람이 쓴 <지의전>이란 책이 나온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저장성(浙江省)에서는 천태학에 대한 국제학술회의가 4번 열렸다.

중국 천태종의 개종조인 지의대사는 중국 학자들이 뽑은 전 세계 최고의 사상이 10명에 꼭 포함된다. 불교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적으로도 연구가 활발하다.

타다 코오분(多田孝文, 대정대학) 교수가 지의대사를 작은 석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석가모니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을 꽃피운 스님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에서 불교의 위상은?

허진송 : 중국 헌법 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으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불교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다. 개혁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탐(3)

정림사탑·미륵사탑

미륵사지석탑은 2002년 10월 이후 해체 보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일제강점기 때 보수를 위해 발라놓은 시멘트를 제거하고 원형을 최대한 살리려는 작업이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그런데 이 미륵사지석탑은 같은 백제의 탑이라도 정림사지5층석탑과 다른 모습이 다. 두 탑 모두 지붕이 얇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정림사탑은 홀쭉하고 미륵사탑은 뚱뚱하다. 이러한 미륵사지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의문은 정림사탑과 미륵사탑 가운데 과연 어느 탑이 먼저 조성되었는가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일제강점기

로 윤무병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정림사탑이 미륵사지석탑보다 나중이든 먼저이든 분명한 것은 정림사탑이 보여준 우아한 미륵사지는 사비시대를 반영한 양식이고,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위엄 있는 미륵사지는 익산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라는 점이다. 사비시대만 부여를 수도로 정한 시기를 말하고, 익산시대만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 왕궁, 미륵사 등을 건립한 시기를 말한다. 설사 정림사탑이 미륵사지석탑보다 후에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정림사탑에는 사비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 짙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비시대에 일본에 영향을 준 탑, 예를 들면 호류시5층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사진 왼쪽)과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석탑의 위엄있는 형상은 익산시대를 펼쳐 나가기려는 백제인의 의욕이 충만해 있다.



탑 지붕 모두 얇으나 탑신은 홀쭉·뚱뚱 사비시대 우아함·익산시대 위엄 표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자인 고유섭 선생이 제기한 바 있다. 고유섭 선생은 미륵사지탑이 목탑의 구조가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고 정림사탑은 보다 간략화 된 점을 들어 미륵사지탑이 더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륵사탑은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목탑을 변안된 모습이 역력하게 남아 있다. 서가 매를 3단의 계단받침으로 나타내고, 많은 기둥을 설치하며, 창랑의 구조를 표현하는 등 목조건축의 가구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자 윤무병 교수는 발굴을 통하여 정림사탑이 정림사가 세워진 6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640년에 세워진 미륵사지석탑보다 앞섰다는 반론을 폈다. 붓의 논리에 합의 해부로 대응한 그러한 논쟁이다. 여기에 문명대 교수는 양식적인 분석으

의 몸체가 홀쭉하고 지붕이 얇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사비시대 때 정림사탑의 우아한 양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익산시대를 맞이하여 미륵사탑의 위엄 있는 양식으로 바뀐 것이다. 익산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백제조선 전후 무한 대규모 사찰을 조성하다보니 그 규모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기 위해 과체중이 풍부한 탑을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 이후에도 이 두 탑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탑들의 모범이 된다. 부여 장항리3층석탑, 금광산5층석탑, 비인5층석탑 등은 정림사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익산 왕궁리5층석탑과 부여 무량사5층석탑 등은 미륵사탑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덕왕사에 조성할 불상 (사진: 韓國美術 자료집 중에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안내문

귀의 상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지극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사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 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외제외 여러분에게는 고마우신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하겠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참금 계좌번호>
- 농 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왕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육법등(六法燈)



육법등(六法燈)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립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남 및 대리점 모집